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	2019. 6. 5. / (총 10매)			
배 포 일				
감염병총괄과	과 장	이동한	전 화	043-719-7120
	담당자	이윤희		043-719-7111
국립여수검역소	소 장	소상문		061-665-2367
	담당자	명고은		061-665-2369

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◇ 2019년 6월 4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 발생(57세(남), 서울 거주)
- ◇ 어패류 익혀먹기, 바닷물 접촉주의(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), 어패류 5℃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올해 6월 4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○ 환자는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으며,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패혈증은 회복된 상태이며, 환자의 위험요인 노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.

○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, 알콜중독자,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, 치사율이 50%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.

* 2018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현황: 환자 47명, 사망자 20명

<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>

간 질환자, 알코올중독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악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
-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월~10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,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,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.
 - 올해 1월 전남 영광군 범성포구,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도 산지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패혈균이 분리된 후 울산, 여수, 통영, 제주 해수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나 조리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, 특히,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<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>

-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.
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
- ◇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- ◇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.
 - *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,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
- ◇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◇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◇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
- <붙임>
1.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 2. 비브리오패혈증 신고현황
 3. 질의응답
 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
 5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카드뉴스

붙임 1

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정 의	□ 비브리오 패혈균(<i>Vibrio vulnificus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
질병 분류	□ 법정감염병 : 제3군 □ 질병코드 : KCD-7 A 41.52
병원체	□ <i>Vibrio vulnificus</i> - <i>Vibrionaceae</i> 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-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발견
병원소	□ 해수, 갯벌, 어패류, 사람은 주로 기회 감염됨
전파 경로	□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□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
잠복기	□ 12시간 ~72시간
증 상	□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1/3은 저혈압이 동반 □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 - 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
진 단	□ 검체(혈액, 대변, 소변, 직장도말물, 구토물, 수포액, 피부병변, 조직)에서 <i>V. vulnificus</i> 분리 동정
치 료	□ 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□ 항생제 치료 : 3세대 세팔로스포린, 플루오로퀴놀론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
전염 기간	□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음
치사율	□ 50% 내외
관 리	<환자 관리> □ 환자 격리는 불필요 <접촉자 관리> □ 접촉자 관리 : 불필요 □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
예 방	□ 일반적 예방 -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 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붙임 2

비브리오패혈증 신고현황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자 신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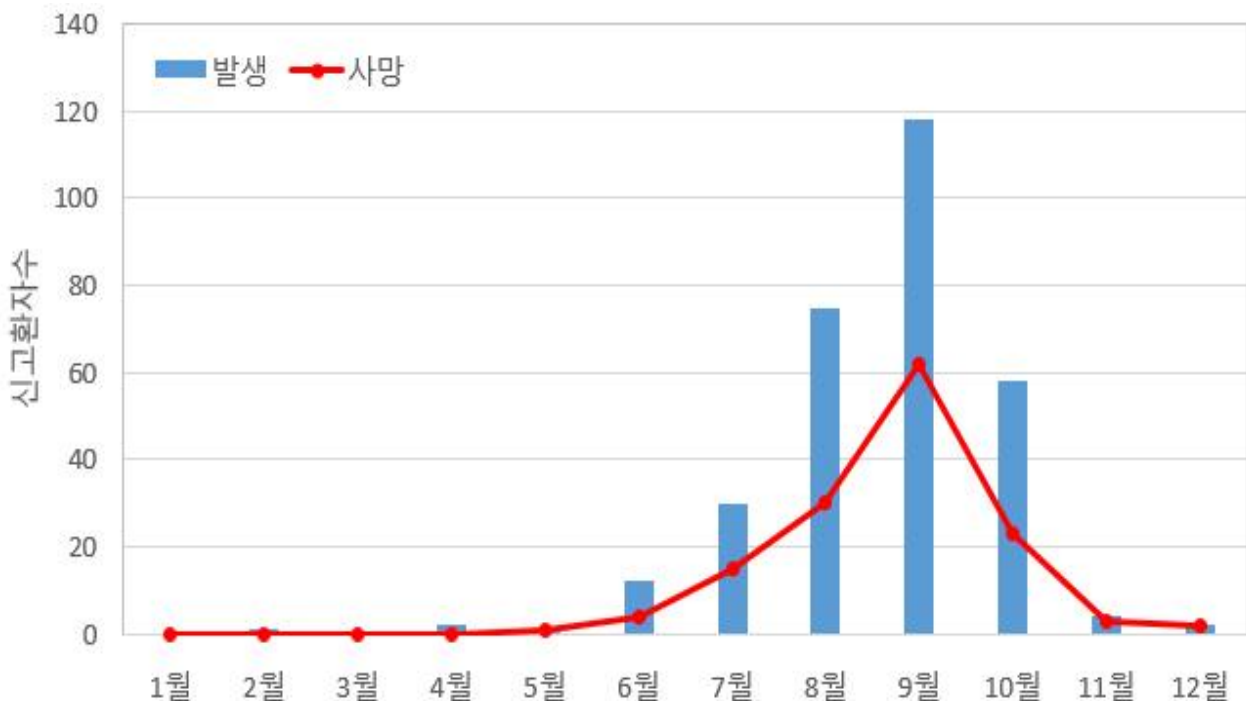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연도 \ 월	신고건수 (사망자수)	연도							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18년	47(20)	0	0	0	1	0	2	7(3)	16(8)	10(6)	11(3)	0	0
'17년	46(24)	0	0	0	1	0(1)	1(1)	2	13(8)	19(11)	9(3)	1	0
'16년	56(12)	0	1**	0	0	0	2	5(2)	20(4)	17(4)	9(2)	1	1
'15년	37(13)	0	0	0	0	0	5(1)	5(2)	4	17(7)	5	1(2)	0(1)
'14년	61(40)	0	0	0	0	1	2(2)	6(5)	10(4)	32(21)	9(7)	0	1(1)
'13년	56(31)	0	0	0	0	0	0	5(3)	12(6)	23(13)	15(8)	1(1)	0

* 2018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

** 해외유입

○ 5년('14~18년)누적 월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 신고 현황



붙임 3

질의응답

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.

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해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)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°C 이하로 저온 저장, 85°C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병변절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.

붙임 4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

비브리오패혈증

예 / 방 / 하 / 기

2017. 5. 1.



Vibrio vulnificus sensu lato

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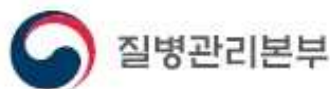
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.

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.

<p>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합니다.</p>	<p>+9분 더 끓이기 +5분 이상 요리</p> <p>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.</p>	<p>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도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</p>
<p>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.</p>	<p>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.</p>	

※ 특히,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도록 합니다.

※ 간 질환자, 임플란트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무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자, 만성용량자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환자



붙임 5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카드뉴스





비브리오패혈증이란?

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(Vibrio vulnificus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바닷물 온도가 18°C 이상 올라가는 5~6월 시작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주로 **오염된 어패류**를 생식하거나 **상처 난 피부**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!

3/7



비브리오패혈증 증상

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구토, 복통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발진과 부종 같은 **피부병변**이 생기고,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며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됩니다

4/7

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1

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어패류는 꼭 85°C 이상 가열처리 후 드시는 것이 좋으며, 상처 난 피부와 바닷물의 접촉은 피해주세요

5/7



6/7

2019. 05. 30

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확인하고
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!